

데스크시각

정 후 식



4·27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마감되고 마침내 투표일이 다가왔다. 지역의 일꾼이자 심부름꾼임을 자처해온 후보들은 길게는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지난해 말부터, 짧게는 공식 선거운동 개시 직후 2주일간 선거구 구성구석을 누비며 표심을 다져왔다. 이제 남은 것은 유권자의 선택이다.

또 하나는 야권연대의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다는 점이다. 강원지사와 국회의원 선거구 3곳에서 민주·민노·진보·참여당 등 야당간 연합공천이 성사돼 여야 간 일대일 구도가 구축된 덕분이다.

‘재보선의 재보선’ 막으려면

선거판 더럽다고 외면하면

국회의원 3곳과 강원도지사, 기초단체장 6곳, 광역·기초의원 28곳 등 전국 38개 지역에서 실시되는 이번 재보선은 비록 소규모이지만 그 의미는 작지 않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을 심판하는 ‘미니총선’의 성격을 띤데다 2012년 총선,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서 민심을 가늠해볼 수 있는 풍향계가 될 수 있어서다. 선거 결과에 따라 여야 지도부 체제와 당내 권력지형에도 대변화가 예상된다. 여야가 정치적 ‘사활’을 걸고 총력전을 펼쳐온 이유다.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반(反) 한라당’을 기치로 전면적 범야권 연대가 시도된 이래 주요 선거구 전체에서 후보 등록 전 단일화가 성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화순군수 재선거 등 모두 4곳에서 치러지는 전남지역 재보선도 중요하기는 마찬가지다. 순천의 경우 야권이 우여곡절 끝에 민주노동당 후보를 단일후보로 내세웠지만 그 과정에서 지역 정치권과 유권자들을 충분히 설득해내지 못했는데다 민주당 성향 무소속 후보들의 경쟁력이 만만치 않아 귀추가

주목된다. 야권 단일후보가 당선되면 ‘호남 최초의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 탄생함과 동시에 내년 총선에서 야권연대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다. 지난 2002년 제3회 지방선거 군수 당선자부터 내리 3명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사법처리돼 중도 퇴진하는 불명예를 떠안은 화순은 이번 선거가 ‘재선거’ 악순환 사슬을 끊어내느냐의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 기로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선거운동 과정을 되돌아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공명 선거를 다잡하

고 선거운동에 돌입했지만 정책 경쟁은 찾아볼 수 없고 비방과 불만이 난무하는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됐다. 선관위에 적발된 전남지역 불법 선거운동 사례는 모두 22건으로 전국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화순군수 재선거의 경우 ‘과열·혼탁 선거구’로 지정돼 선관위가 특별단속에 나섰음에도 음식물 제공과 부채차하위 신고, 허위사실 유포 등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또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일부 후보측은 불법 행위가 적발됐음

에도 반성은 커녕 되레 상대방을 향해 연속반쪽 비방 공세를 일삼았다. 급기야 광주·전남지역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2일 화순군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돈이나 패거리의 위세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와 후손의 미래를 위해 한 표를 깨끗하게 행사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불법행위 반드시 심판해야

선거는 민심의 결과물이다. 당선자의 부패나 불법 선거 행위로 인한 중도 사퇴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는 어찌 보면 민의의 잘못된 선택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지만, 이를 바로잡는 것도 결국 유권자의 몫일 수밖에 없다. 투표는 유권자의 권리지만 의무이기도 하다. 재·보선을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후보자 홍보물이라도 꼼꼼히 살펴 ‘욕설·라기’에 참여해야 한다. 특히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탈법을 일삼고 혼탁을 조장한 후보들은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선거판이 더럽다고,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다고 외면하면 민주주의는 후퇴한다. 최선이 안되면 차선이라도, 차선이 안되면 차악(次惡)이라도 선택해야 한다. 그 것이 민주정치다.

/정치부장 who@kwangju.co.kr



강 대 석

흔히 교육을 졸탁동시(啗啄同時)에 빗대어 얘기를 하곤 한다. 졸탁동시란 앞에서 병아리가 깨어 나올 때 안에서 병아리가 쪼는 것을 졸(啗)이라 하고, 그 소리를 듣고 어미닭이 밖에서 껍질을 쪼아 나오도록 도와주는 것이 탁(啄)이다. 즉 졸과 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으로 교육에서도 가르침과 배움이 상호작용 아래서 이루어져야 성과를 낼 수 있음을 이르는 말이다. 올해부터 공무원들의 상시학습시간이 대폭 확대되었다. 상시학습이란 민간의 평생

학습 개념을 공직사회에 도입한 것으로 공무원들이 직급별로 매년 일정시간의 교육을 이수도록 하는 제도이다. 학습시간 인정은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집합 교육뿐만 아니라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 연구모임 활동 등 다른 학습실적도 포함되므로, 공부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지식 정보화시대에 걸 맞는 전문공직자 양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상시학습시간이 확대되면서 이제 교육원은 대부분의 공무원이 일 년에 한두 번 이상 다녀 가야하는 필수코스가 되어 연일 교육생들로 활기가 넘친다. 우리 교육원에서는 이러한 상시학습시간 이수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과정을 대폭 늘리고 사이버 학습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금년도 교육훈련 방향은 크게 세 가지이

다. 첫째는 이론훈련의 교육보다는 업무에 필요한 실무실습과 현장학습을 강화했다. 실무실습을 통하여 배운 지식을 현장에서 바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학습을 통하여 우수사례를 배워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친환경 농업이 잘되고 있는 지역이나 주민들이 기업을 유치한 지역, 농수산업의 기업화·규모화가 잘 된 주민주식회사 등 도내의 각종 시책 우수지역을 위주로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생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다. 둘째는 도정시책 대응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유치 교육을 강화하고, 4대 국제행사인 F1국제자동차 경주대회, 2012여수세계박람회, 2012국제농업박람회, 2013순천정원박람회 등의 지원 및 업무수행 능력을 높이는 가운데, 국·도정 시책교육을 병행

미래를 여는 공직자 양성을 위하여

함으로써 도민들의 도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의 폭을 넓히는 가교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는 우리 전남 바로 알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남의 공무원으로서 전남을 바로 알고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매월 전 교육생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의 역사, 문화, 전통, 인물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1주 이상 교육과정에 우리 전남 바로 알기 과목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훈련이 소기의 목적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교육생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상시학습의 시간을 채우기 위한 의무적 참여보다는 자기 역량 개발과 도정발전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역의 미래를 열어가고 발전시켜 나가는 주체는 누가 뭐라고 해도 공직자이다. 졸탁 동시의 여처럼 창의적인 교육과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어우러져 미래를 여는 공직자가 더욱 많이 양성되기를 기대한다.

<전남도 공무원교육원장·시민>

기 고



류 용 빈

광주천은 광주시민의 삶과 생명, 문화를 담고 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광주천은 그것이 생겨난 이래로 광주시민의 다양한 활동이 집적된 곳이었을 것이다. 1919년 3월10일 광주천 백사장에서 독립만세 소리가 울렸고, 그 후로도 오랫동안 아이들은 이곳을 놀이터로 했으며, 여성들은 빨래를 하고 수다를 떨었을 것이다. 또 당시 존재했던 광주읍성 내외의 사람들이 줄다리기를 하며 마음을 모았던 곳도 이 광주천이었다. 그 후 일제강점기를 지나 굽이굽이 광활한 하천변을 가졌던 광주천은 마치 도로처럼 반듯이 파졌고, 그러면서 이러한 정취를

도 조금씩 자취를 감췄다. 광주시는 이러한 아쉬움을 달래고 과거 문화공간이었던 광주천을 재생·복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광주천은 도시화로 인해 유역의 97.3%가 주택과 아파트, 도로 및 공장 등으로 조성됨에 따라 조금만 비가 내리면 넘실대기 일쑤고 과거 경제개발만이 중시됐던 70년대 양동 복개사가 구간을 시작으로 웅봉천, 동계천, 극락천 등 주요 지류가 복개되면서 하천의 기능이 상당부분 쇠약해져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이상기후로 강우량이 들쭉날쭉하면서 하천을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 주는 것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강우의 유형과 하천 유역 및 도시하천 특성을 염두에 두면서 하천 중심의 생태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고 있다. 일단 말라버린 광주천에 물을

광주천에서 광주의 미래를 본다

금급수할했다. 우선 지난 1997년부터 영산강 본류의 하천수 4만3000t을 끌어올려 상류에 방류하는 등 수량 확보에 나섰다. 두 번째로는 본격적인 수생태계의 건강성과 하천복원을 위해 ‘광주천 정비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하수처리장 방류수 10만t을 여과처리한 후 광주천 상류에 공급함으로써 이전과는 다른 광주천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 수질오염총량제에 따라 나주시와의 경계의 목표수질 5.6mg/l (BOD기준)를 달성하기 위해 신규 지역개발사업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 발생부하량을 최소 50% 이상 삭감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처럼 광주천 생태계의 건강성 회복과 하천복원을 위해 진행된 긴급수질, 하천복원, 물순환 시스템 개선 등에 나섰으나 여전히 유역환경은 도시화되고 지류가 복개돼 있어 이 같은 시도들의 한계가 드러나

에서는 전기요금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다. 전기요금이나 전기사용과 관련해 문의사

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맑은 물이 흐르는 영산강·광주천 조성’ 비전을 선포하고 맑고 풍부하며 녹색의 생태를 지닌 영산강·광주천 조성을 목표로 수량확보 및 수질개선에 대해 달성 가능한 12개 세부 사업을 선정했다. 또 광주천 상류, 중류 및 하류의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광주천 하천복원을 위해 시급성과 최적의 수질개선 효과를 고려, 추진계획을 장단기로 수립했다. 이를 위해서는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한다면 전폭적인 국비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하천 생태계의 복원은 시대적인 요구이며, 하천의 환경을 보존하고 지방에서 하천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도시를 재생하는 것이다. 파리의 세느강, 독일의 라인강의 사례에서 보듯이 하천이 살아나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면 광주천도 세계적인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도 반드시 필요하다. 시민과 함께 ‘광주천 르네상스’를 열고 싶다.

<광주시 생태하천수질과장>

한전 창구서 전기료 수납 안해…편의점·은행 이용을

가까운 24시 편의점에서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 마감시간 후 요금납부의 불편을 덜기 위해 한전은 24시 편의점과 협력해 전기요금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전기요금 청구서에 기재돼있는 고객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한전에 방문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은행 자동이체, 텔레뱅킹, 한전 사이버지점은 물론 휴대전화를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특히 전기요금을 자동이체하면 요금의 1%를 할인(1000원 한도 및 신용카드 자동이체 제외) 받을 수 있다. 이처럼 한전은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비효율적인 요금납부 방법을 쉽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요금 납부를 다양화하면서 지난 1일부터 한전 창구에서의 수납은 폐지했다. 다만, 제도 변경을 몰라 창구를 찾은 고객들에게는 오는 5월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창구에서도 받는다. 6월부터는 창구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서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시 설

7천억 선수촌사업, 지역업체 배제 안 된다

사업비가 무려 7000억 원에 달하는 광주하계대회 선수촌 조성사업에 현대건설이 독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지역건설업체의 참여가 배제되는 것은 물론 자금의 역의 유출만 초래해 지역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다. 최근 현대건설이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함에 제출한 제안서를 보더라도 지역업체 참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지역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겠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는 것이다. 현대건설이 독자 시공에 나선다면 특히 시비가 재연되고, 광주시의 책임 소재와 지역건설업체의 반발 등 파문은 만만치 않아 보인다. 이번 선수촌 조성사업은 광주시가 현대건설 측에 미분양에 대한 보증과 사업 손실에 대한 보전, 세입자들에 대한 이주 책임을 지는 등 사실상 특혜 수준이다. 시민사회단체와 일부 시의원들이 적극 반대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광주시가 책임을 떠 안는 이런 특혜라면 선수촌 조성은 민자사업이 아니라 시의 재정사업으로 봐야 옳다. 따라서 현대건설이 지역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재정사업에 지역업체가 일정 비율 참여하도록 규정을 둔 게 자치단체의 상식 아닌가. 만일 현대건설이 이를 외면한다면 광주시의 각종 보전이 시민의 혈세로 충당되고, 다른 한편으로 수익이 역의 유출된다는 점에서 지역의 반발은 볼 뵈듯 뻔하다. 지금 광주·전남 건설경기는 중견업체들의 잇단 도산과 법정관리 등으로 인해 최악의 상황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현대건설과 재건축조합이 지역업체와 함께 가는 게 순리라고 본다. 그 중심에 있는 광주시의 역할은 그 이상이다. 지역업체의 참여를 반드시 관철시키라는 얘기가. 엄청난 특혜를 주고도 지역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유독가스 배출 소각로에 규제장치 없다니

정전 등 비상시에 불완전 연소로 유독가스를 배출하는 여수산단의 ‘플레이스텍(페가스 소각로)’에 대한 규제장치가 전혀 없다고 한다. 환경오염은 물론 인체에 유해한 유독가스 배출 시설이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고 있단니 전남도 등 당국에 환경오염 불감증이 놀라울 따름이다. 페가스 소각로는 각 공장이 대대적인 정비기간이나 정전 등과 같은 비상시에 가동을 중단할 경우 폭발이나 화재 예방하기 위해 잔여 가스를 대기중에 소각해 배출하는 장치다. 여수산단에는 이 같은 페가스 소각로가 21개 업체 16개 사업장에 모두 54개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여수산단의 페가스 소각로의 오염원 측정장치는 전무한 실정이다. 페가스 소각로를 통해 어떤 종류의 유독가스가 얼마나 배출되는지 전혀 알 길이 없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7차례나 정전 등의 비상상황이 발생한 여수산단 내 한 공장은 그때마다 엄청난 양의 유독가스를 배출하는 등 막대

한 환경피해가 발생했으나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일부 공장은 페가스 소각로 설계용량이 작아 비상상황 시 유독가스 배출이 불가피하지만 투자비 때문에 시설 개선을 하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여수산단의 주변 주민과 환경은 유독가스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황이 이런 데도 전남도는 현행법상 페가스 소각로에 대해 마땅한 규제 조항이 없으며 두 손을 놓고 있다. 주민 건강과 환경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에도 범조항 타령만 하고 있는 것이다. 전남도는 제도가 미비하다면 환경부 등에 건의해서 보완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또한, 자체적으로 페가스 소각로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시설 개선을 강제해야 할 것이다. 주민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오염을 뻔히 보면서도 방관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범죄행위다.

無 等 鼓

“갑자기 지혜를 깨놓을 순 없다” 지난 10일 충남 공주에서 열린 ‘간화선과 위파사나의 만남’ 연찬회에서 위파사나 수행의 대표격인 미안파 파육 스님이 말씀하셨다. 한국 간화선의 대표 수행자 고우 큰스님이 “화두(話頭)를 들어 절벽에서 점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면, 미혹에서 벗어나 어느 한 순간 깨우칠 수 있다”고 말한 데 대한 반론이다. 파육 스님은 “부처님은 깨구리가 강충 뛰는 것처럼 깨달음을 한 번에 얻을 수는 없다고 하셨다. 깨달음은 점진적, 지속적 수행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고우 스님은 이에 대해 “누구나 자신이 부처임을 모르고 사는 데, 그 걸 깨닫는 빠른 길이 간화선”이라며 ‘위파사나’(깨달음에 도달하는) 평탄하고 긴 길이라면 간화선은 짧은 대신 굉장히 가파른 길’이라는 비유를 들었다. 서로 수행방법은 다르지만 결국 목적은 모두가 깨달음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두 분 큰 스님이 거론한 깨달음은 당연히 진리에 대한 것일 터이지만, 속세

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그 깨달음이 어떤 형태로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다. 불교 용어에 간혜(乾慧)라는 것이 있다. 머리로는 안다고 해서 ‘마른 지혜’라고도 하는데, 비록 깨달음을 얻어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겼다고 할지라도 그 깨달음을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의지력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

한다.

최근 현직 판사가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 남의 잘잘못을 판단하고, 사회 정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해야 할 판사가 한 순간의 충동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성추행이 어떤 죄인지 머리로는 너무도 잘 알면서도 피해 여성에게 향하는 발걸음은 멈추지 못했으니, 바로 ‘마른 지혜’가 아니고 무엇인가. ‘머리에 열마나 들어있느냐’는 것으로 사람을 평가해 온 우리 사회에 문제는 없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 같다.

/홍행기 정경부차장 redplane@

마른 지혜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申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제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교마케팅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